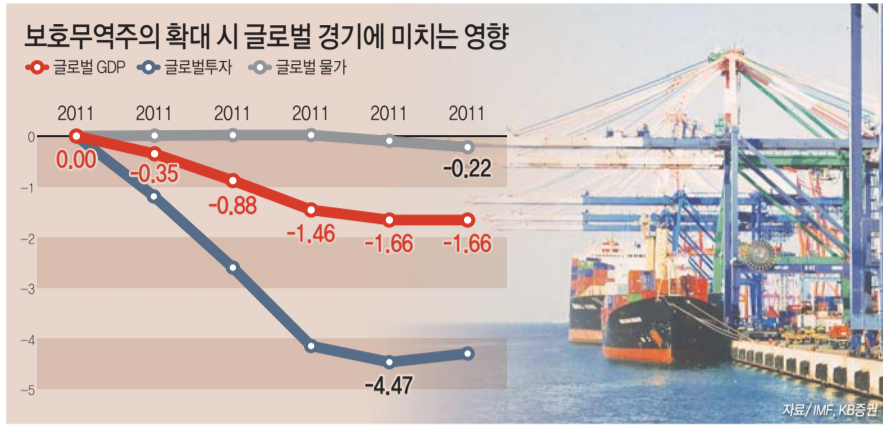


# 美·中 무역갈등, 新아편전쟁 양상... 韓경제 중독위기

(성장률 급락)

보호무역확대면 수출·수입 감소  
韓, 중국 경제의존도 비중 커  
中 GDP 1%p 하락엔 성장률 하락  
직·간접 차질 규모 0.5% 추정



G2 갈등이 세계 각국의 무역전쟁으로 퍼진다면 한국 경제는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韓 0.50%p ↓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규모가 1500억달러가 되면, 미·중 GDP가 0.3~0.4%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르면, 전 세계 GDP가 1.4%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

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을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포인트(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

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 무역전쟁과 외환시장, 신흥국 통화 변동성 확대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IMF에 따르면 A라는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모두 A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한다. 특히 일방적 관세 부과보다 보복관세 부과때 성장률 하향 충격은 더 크다. 예를 들어 국가 A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차에 성장률은 0.09% 감소하는 반면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국가 A의 성장률은 0.25% 감소한다. 장기적으로도 관세 부과는 국가 A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수출과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는 '교역 악화→투자 위축→전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IMF의 모형(GMIF) 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세계 GDP는 1년차에 이미 0.35% 감소하고, 3년차에는 1.46% 감소, 5년차에는 1.66% 감소한다. OECD도 '매크로 경제의 일반적인 평가(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

economic situation)'란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유럽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14% 이상 감소하며, 수입은 7% 인פק 감소한다. 미국 경제규모는 2% 가량 줄어든다. 중국도 수출입은 12% 감소, 경제규모 역시 2% 감소한다. 유럽의 수출입규모와 경제규모 역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입 규모는 6% 감소, 경제규모는 1.5%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리암 카슨(Liam Carson)은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부상은 신흥국의 중장기 무역 전망에 위험 요소이며,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서 무역 전쟁 그 자체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인 이유다. 특히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IMF는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경고해 왔다. KB증권 김두연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성장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G2 무역분쟁은 글로벌 중요 중장은 행들의 상이한 행보를 더욱 확대시킬 소지가 있다. 자본의 유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흥시장국 통화들의 변동성 확대는 이전보다 커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취미에 지갑 여는 2030 '문센족' 온라인 몰도 '워라벨' 변화 바람

워라벨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온라인몰에서도 소비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20~30대 여성 직장인들이 신(新) '문센족'으로 급부상하면서 취미관련 용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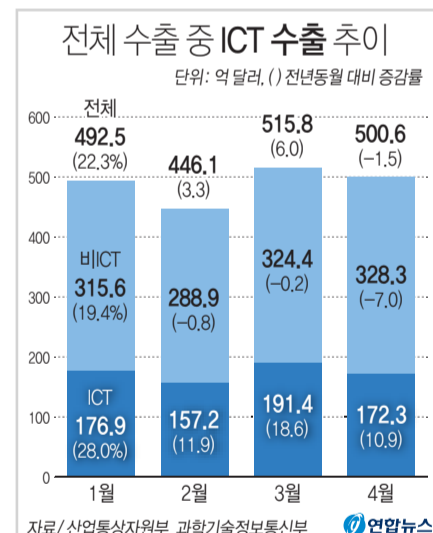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옥션이 최근 한달(5월11일~6월10일)동안 공예, 미술, 음악 등 2030세대 여성들의 취미용품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워라벨' 열풍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문화센터의 취미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온라인몰에서 취미용품을 구입하는 2030 여성들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예나 미술 관련 용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문화센터,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한 목공예 강좌가 인기를 끌며 관련 상품 판매가 8배(767%) 이상 급증했다. 의자, 책상 등 가구류부터 작은 사이즈의 도마나 시계, 스피커 등 선물하거나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좋은 제품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어 취향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다. 판화용품도 4배(286%) 가까이 급증했다. 간단한 문구를 비롯해 캐릭터, 일러스트까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 손수건이나 예코백 등 패브릭 제품 디자인에 활용이 가능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여진다. 취미로 유화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늘며 유화세트(233%) 판매도 증가했고, 학창 시절 사용했던 파스텔도 3배(220%) 이상 급증했다. 2030세대 여성들의 대표 취미로 꼽히는 캘리그라피 관련 상품은 3배(218%) 이상 급증했고, 이밖에 소묘연필(38%)과 수

채화물감(18%), 드로잉용품(17%) 등도 모두 두 자리 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문화센터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악기를 배우는 이들이 늘며 악기 등 관련 상품 판매도 증가했다. 클래식기타는 동기간 5배(450%)이상 경종 뛰었고, 색소폰 판매도 3배(238%)이상 늘었다. 작은 크기의 하모니카도 인기 취미생활로 부상하며 지난해 보다 47% 증가했다. 키보드와 나 홀로 여가족으로 인해 매출신장률을 보인 상품도 있다. 티몬에 따르면, 가장 높은 매출신장률을 보인 상품은 무선RC와 드론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174% 올랐다. 집에서 오롯이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음반과 DVD매출도 144% 신장됐고, 아날로그 감성을 더한 보드게임도 인기다. 티몬에서 올해 상반기 보드게임 매출은 108% 상승했다. 임석훈 티몬 리빙본부장은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관련 용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반도체 빼면 비실비실... 3개월 연속 '역성장'

4월 ICT 수출액 전년 비 10.9% ↑  
ICT 제외 수출액은 7.0% 감소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외하면 수출이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4월 ICT 수출액은 172억3천만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했다. ICT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품목에 한정해 산출된다.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 반도체 경기와 밀접한 움직임을 보인다. 4월 전체 수출(500억6천만달러)은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1.5% 역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CT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선반'한 것이다. ICT 수출은 2016년 12월부터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성장상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3.1%)한 것도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조 덕이 컸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ICT 수출을 제외하고 보면 수출 탄력은 올해 들어 점차 둔화하는 모양새다. 4월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을 빼면 수출액은 328억3천만달러로 쪼그라든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7.0% 감소한 수준이다. 비(非)ICT 수출은 올해 2월 288억9천만달러, 3월 324억4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0.8%, 0.2% 감소한 데 이어 4월까지 3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다. 비ICT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기는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 증가율도 1월(22.3%) 이후 2월 3.3%, 3월 6.0%, 4월 -1.5%로 둔화하는 모양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제 '허쥬마' 허가 재개

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의 추가 보완자료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 완료해 허가 심사가 본격 재개된다. 셀트리온은 최근 FDA에 허쥬마(CT-P6)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보완자료를 공식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FDA는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보완서류 접수 후 통상 6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의 허가 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과 5월 FDA에

트루스마와 허쥬마의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를 각각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최근 FDA로부터 두 제품의 허가와 관련, 지난해 5월 실시된 FDA 정기심사 결과와 연관되어 CRL(Complete Response Letter)를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리톡시마 바이오시밀러인 트루스마와 마찬가지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 경쟁에서도 론칭 계획에 따른 순조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연내 허쥬마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트루스마와 허쥬마의 미국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두 제품의 미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대형제약사 테바(TEVA)를 통해 트루스마와 허쥬마를 미국 시장에 조속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